

1 개요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는 제주시 외도동 우렁이 마을 김씨 집안 조상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양반 집 자손으로 태어난 김씨 하르방은 멥두를 발견한 뒤로 신기가 있어 결국 큰심방이 되었는데,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용연에서 기우제를 하여 비를 내리게 한 공으로 통정대부가 되고 관에서 지어준 큰집에서 부자로 살았다.

2 내용

김씨 하르바님은 본래 귀덕 양반 댁의 삼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열 다섯이 넘어 광지리 고씨 댁에 장가를 들었다. 한 해는 처가에 세배를 하고 돌아가려고 광지 위에 있는 세양거리를 지나는데, 난데없이 북소리, 징소리, 팽과리소리가 들렸다. 말에서 내려 장남에게 큰 돌을 굴려보라고 하였다. 돌 아래를 보니 멥두 한 벌이 있었다. 멥두를 가지면 심방이 된다고 여겨 그냥 두고 돌아갔다.

그날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낫지를 앓으니, 문점을 해서 굿을 시작하였다. 닷새가 되어 대신맛이가 당하니, 심방이 바른 말을 하라고 하였다. 누운 채로 사실대로 일렸다. 심방은 멥두를 모셔다가 굿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픈 몸을 이끌고 말을 타고 가서 멥두를 가져다가 큰굿을 하니 다시 건강을 찾았다.

하루는 여름철이라, 팽나무 그늘에 앉았더니, 무악기 소리가 뚜렷이 들렸다. 소리 나는 곳을 따라가다 보니 정의(旌義) 예촌마을에 이르렀다. 한 집에서 큰굿을 하고 있었다. 들어가서 술과 밥을 얻어먹었다. 자신도 심방이니 굿을 조금 해드리겠다고 하고 나섰다. 심방노릇은 할 줄 모르지만 글은 많이 아니 글로 이렇다 저렇다 읊었다. 그리고 나서 당부하기를 “사람들 동원해서 지봉을 헤집어 보시오.”라고 하였다.

그 집은 아들이 없어 대를 이어볼 요량으로 첩(妾)을 얻었는데, 본부인이 덜컥 아들을 낳아버렸다. 첩이 부아가 잔뜩 나서, 아들을 죽이려고 죽은 고양이를 여자 속곳에 싸서 상마루에 파묻었다. 그 바람에 아들이 곧 죽게 되었고, 이 때문에 굿을 하는 것이었다. 김씨 하르바님 말대로 하였더니 고양이가 있었다. 고양이를 불태웠더니 아기가 살아났다.

굿을 마치고 나오는데, 주인이 어디 사는 누구냐고 물기에 대답을 해주고 나왔다. 두어 달 있으니, 예촌 그 집에서 곡식과 무명을 말에 잔뜩 싣고 찾아와 두고 갔다. 하르방은

일가친적을 불러다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는 마을을 떠나 이호이동 오도롱 골앗동 네로 갔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심방노릇을 하여 큰심방이 되었다.

그렇게 사는데,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 김씨 심방이 목사에게 가서, 기우제(祈雨祭)를 해보겠다고 하고 목숨을 걸고 허락을 얻었다. 서른세 발을 길이로 용을 만들고, 꼬리는 용연 용수에 놓고 머리는 제상에 놓고 해서 굿을 하였다. 그리고 목사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내일 정오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과연 뒷날 열두 시에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천둥, 벼락과 함께 큰비가 쏟아졌다.

이리하여 제주 백성들을 살려놓으니, 목사가 그만 하면 만백성을 살렸으니 심방을 그만 두어도 좋다고 하고, 통정대부(通政大夫) 직함을 내어주고 외도 우렁이에 큰집도 지어주었다. 그곳에서 종들을 거느리면서 부자로 잘살았다.

3 특징

양창보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대부분은 멍두를 발견한 뒤 신병을 거쳐 입무하게 된 내력으로 채워졌고, 끝에 본격적으로 무업에 나서 큰심방이 되고 용연 기우제에서 능력을 보여 벼슬과 집을 받고 부자가 된 내력이 덧붙여 있다.

용연 기우제 관련 내용은 고대장본풀이에서도 볼 수 있다.

4 핵심어

귀덕, 광지, 멍두, 예촌, 고양이, 오도롱, 큰심방, 용연, 용소, 기우제, 김씨 심방, 김씨 하르방, 외도동, 우렁이마을

5 원전 서지사항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김헌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6 관련 자료